

#### 14. 메밀꽃 무렵에 없어진 토종 메밀,

메밀, ‘메’자가 접두어로 주로 차지다의 ‘찰’과 비교 용어로 거칠다는 의미로 쓰인다. 메벼, 메보리, 메조, 메수수, 멧돼지 등이 모두 그렇다. 그만큼 메밀은 ‘달빛 아래 순백의 메밀꽃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지만, 거친 음식이다. 박물관에는 일반 메밀 5종과 쓴 메밀 5종의 토종이 있다. 그러니까 토종 메밀 종자는 모두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오래전에 수집한 메밀이어서 겨우 자료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어서 다시 메밀 수집을 계획했다.

토종 메밀을 찾으러 첫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봉평이 떠올랐다. 메밀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낭만적 각인이 먼저 나를 불러냈기 때문이다. 축제부터 문학관, 메밀국수 등 메밀이란 이름이 봉평을 뒤덮었다. 봉평 수집도 축제 시기에 맞췄다. 그러나 첫날 첫 음식을 메밀국수를 택하면서 불안감이 슬쩍 스쳐 갔다. 두 가운데를 다녀봤지만, 메밀의 원산지가 모두 수입산이었다.

설마?

그 불안감 때문에 축제를 뒤로하고 서둘러 토종 메밀을 찾아 나섰다. 많은 사람을 만나봤다. 토종을 심는 사람은 여럿 있었으나 길어야 겨우 2년 정도였다. 모두 자급하는 정도였다. 대를 이어 심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봉평 메밀을 대표할 만한 농가는 없었다. 우리가 찾는 농가는 메밀이 지역 문화와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알 수 있는 농가였다. 혹시나 하고 마지막으로 시장을 둘러봤다. 시장 수집상에는 토종 메밀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봉평에서 수집한 메밀은 없었다. 모두 제주산이었다. 하루를 꼬박 돌아다니다가 포기했다.

이런! 수집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내가 없어서야, 찝찝!

이런 말을 해줄 분을 기다리며 또한 이 경험이 나만 겪기를 바라며 하는 수 없이 제주로 향했다. 2월이었다.

그러나 제주에서 토종 메밀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찾은 곳이 자청비 마을, 안덕면 광평리를 찾았다.

제주도의 메밀 농사는 아름다운 이름 자청비로부터 시작한다.

자청비, 내게 들리기로는 신화의 주인공 이름 중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 자청비다. 이효석 작가가 바라본 메밀도 이렇게 아름다웠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숨이 막힐 정도였을까?

주몽이 가지고 오지 못한 씨앗은 보리, 이 땅의 건국 영웅들은 모두 건망증이 있었을까? 아니면 배고픔 극복의 극적인 효과를 노려 굶어 죽을 만하면 ‘짚!’하고 씨앗을 내놔 백성들을 구한다는 자신만의 컨셉으로 백성을 다스렸는지도 모른다. 씨앗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었으니 그렇다. 주몽은 자신의 화살 솜씨까지 보이며 군사적 겁박을 하고, 자청비는 칼 위에서 놀 수 있는 신력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며 제주도민에게 농경신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그녀도 껌박하고 가지고 오지 못한 씨앗 하나. 바로 메밀이었다. 메밀은 게으른 사람들의 곡식이다. 예수가 늦게 시작한 사람이나, 일찍 시작한 사람이나 모두 같은 샅을 주듯이 자청비가 가지고 온 메밀은 혹 게을러 파종을 노친 농부라도 수확 시기는 함께 할 수 있다.

게을러도 한 몫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래서일까. 부지런한 사람들에게는 농경신이면서 그리 크게 대접받지는 못한다. 웅장한 신물을 세워 숭배받는 것도 아니요, 커다란 신전이 있어 시시때때로 제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들밥을 먹을 때 미리 한 수저 떠서 ‘고시레’하면 끝이다.

그렇게 제주도에 내려온 메밀이니 어쩌면 천박한 작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달리 보면 너무 귀한 작물이다. 제주도의 척박한 땅에 무슨 작물을 장담할 수 있었을까? 파종이 실패한

다든지 아니면 유난히 제주도에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친 후에 심을 수 있는 유일한 작물이었을지도 모른다. 메밀은 중복이 지나서 심는 몇 안 되는 작물 중 하나다.

그렇다면 메밀은 게으른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사정이 있어 늦어진 자연의 몫이다. 제주의 기온은 따뜻하지만 언제 바람이 불어와 작물들을 덮칠지 모른다. 혹시 일찍 심었다가 피해를 본 농가가 대체로 심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메밀이었다. 그래도 다른 작물을 수확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은 메밀이 가지고 있는 복이다.

그런 면에서 자청비는 이러한 제주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신이었다.

조가 쌀이 되어 좁쌀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밀과는 전혀 비슷한 거라고는 없는 작물이 메밀이다. 배고픈 시절 한반도에 들어와 마땅한 이름을 찾지 못해 붙여진 이름 메밀. 참밀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름이 붙여져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이 메밀을 제주도의 주 작물로 자리 잡으면서도 지금까지 다른 이름을 갖지 않을 정도의 고집불통처럼 이름의 정당을 열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메밀이란 이름이 전부일 뿐이다. 이름의 분화가 많은 조와는 대비된다.

마을에 들어서자 기대가 먼저다. 여기저기 메밀에 대한 홍보가 빗발친다. 이미 마을은 메밀 마을이 되어있었다. 봉평 식당에서 엄습한 불안감이 우리를 당황하게 했다. 서구의 물이 든 현대적 멋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자청비가 마을 곳곳에 있었고, 마을에서는 메밀을 가지고 6차 산업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만나는 분마다 메밀을 이야기하고, 누구나 메밀을 조금씩 심고 있었다. 메밀을 찾아왔다 하니 가공 공장을 소개해주고, 메밀 판매에 대해 안내했다. 그러나 토종 메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 토종! 토종? 에이, 그거이 돈이 됩니까?

- 미친 짓이지. 요즘 메밀은 태풍을 피할 필요도 없고, 맛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사실 자청비 홍보 판을 봤을 때부터 이미 미친 짓인지는 알았다. 마을 사람들을 여럿 만났지만 어쩌면 똑같은 말만 할까 싶어질 정도였다.

그러다가 겨우 쉼터에서 만난 한 분, 오직 그만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도 태풍 ‘매미’가 마을을 뒤집어 놓아 그가 종자조차 수확하지 못했을 때, 겨우 종자용으로 얻은 기억으로 그녀의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었다. 이 안타까움을 듣기 위해 마을 어귀 평상에서 **쓸데없는 메밀 홍보**를 한 시간을 들어야 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 이젠 끝나쓰무.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못 만날걸. 우리도 본지 여러 달인데, 한 번 가보던지. 저쪽이니

- 뭐, 토종을 심는다고 고집을 피워

- 돈이 되나 떡이 되나? 쫓쫓!

알만했다. 아주머니 한 분은 마을 일에 협조를 안 했구나. 6차 산업을 하는데 끼질 않았구나. 마을에서는 메밀 하면 그 아주머니일 텐데, 협조가 없었으니 영 못마땅할 수밖에. 그래도 큰소리치는 것은 그 아주머니 없이도 훌륭히 해냈다는 것을 방증했다. 나중에 할머니 얘기를 통해 안 일이지만, 수확을 많이 하겠다고 수입 밀을 옆에 심으면 튀기 된다고 어지간히 싫어했던 모양이었다.

그가 한 시간 만에 가르쳐 준 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얼렁뚱땅 손으로 가리킨 곳을 찾아 단지 뒤 오름 밑에 살던 할머니 한 분을 겨우 찾았다.

이만희 할머니 덕이었다.

이 할머니는 마을에서 섬이었다. 제주도 속의 섬이 바로 산 아래 푸른 제주 바다처럼 청색 지붕을 하고 마을에서 떠 있었다. 홀로 남겨져 있었고, 정확히 아무도 관심 없는 섬이었다. 특

히 할머니가 심고 있다는 것은 메밀은 메밀 속의 섬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만날 수 없었다. 할아버지 얘기라면 작년 가을에 쓰러져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보전하고 있어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일 못하고 누워만 있으면서 생목숨만 붙어 있으니 할머니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마을 사람들도 만나기를 꺼린다고 했다. 그럴 만큼 일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일도 많이 했단다.

우리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할머니 뵈기를 청했으나 할아버지는 씨앗이라면 자신이 준다면 서 여러 씨앗을 내놔다. 물론 메밀은 없었다.

우리는 메밀에 대해 알고 싶어 왔다고 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니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예민하여 만나지 못하니 그냥 가란다. 건강을 자신하던 할머니가 아마 쓰러진 후 자괴감에 예민해진 모양이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타 준 미지근한 밀크커피를 마시며 할머니를 방안에 두고 뒷마루에 걸쳐 앉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는 주로 할머니 고집 얘기를 하며 쓰러진 게 그놈의 똥고집 때문이라며 흥을 봤고, 우리는 주로 듣기만 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사람보다는 오래 있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돌아서는 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자기 홍보는 할아버지에게 뭐라 하는 것이란다. 할아버지는 아니라고 그냥 가라고 했고, 우리는 분명 할머니가 우릴 찾고 있으니 방에 한 번 들어가 보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가 들어가더니 별일이라며 잠시 들어왔다 가라며 손짓한다.

오!

그렇게 이만희 할머니를 만나게 됐다.

할머니는 조그만 침상 위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이불을 걷어 내려 눈을 마주쳤다. 고집스럽게 입을 웅 다물고 계셨다. 그렇지, 저런 고집이 아니었으면 어찌 지켰을까?

곰처럼 일만 하다가 **작년 가을 어느 날**, 쿵 하고 제주 화산 굴을 내리치듯이 울리는 소리 내면서 쓰러졌다. 그렇지만 피지도 못한 팔자, 그 억울함에 입을 닫았다. 이웃과 연도 끊었다. 말을 묻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나중에 내용을 정리하면서 할머니의 삶에 대한 인터뷰 못 한 점이 못내 아쉬웠지만, 메밀에 대한 그녀의 고집은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

우리는 토종 메밀을 찾아왔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러자 문득 꺼져가던 그녀의 목소리에서 독기가 뿜어냈다.

- 누가 씨종자를 주나? 메밀 없수다!

이 말이 수집 다닐 때 내내 귓전을 울렸다. 그러니까 그녀를 찾아온 이유가 씨앗을 수집하러 왔다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지 냅다 핀잔하고 나셨다. 할아버지 말로는 몇 해 전부터 토종씨앗 수집하러 몇몇이 지나갔고, 그들은 달랑 씨앗만 얻어가곤 했다는 것이다. 그걸 아니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 한 시간가량은 이야기 한 것 같다. 하긴 우리가 찾아간 시기가 2월이었으니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종자 말고는 없을 터였다. 더구나 그 종자는 쓰러진 할머니가 일어나면 다시 파종해야 하는 희망이었다. 희망을 함부로 타인에게 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녀의 광에는 메밀 종자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 매미 태풍 때 힘들었다면서요? 그래도 용하게 지키셨네요.

그녀는 가늘게 눈을 떴다. 주로 눈을 감은 채 묻는 말에 답해 주었지만, 흥미를 느끼거나 흥분을 시키는 말을 하면 실눈을 뜨곤 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을 이어갔다.

태풍이 지나갈 때는 몰랐다. 매년 지나가는 것이니 단단히 아금받게 동여매고 나면 태풍이

그리 큰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매미’는 달랐다. 처참하게 그들의 준비를 망가트렸다. 메밀밭에 나가면 밭의 모든 것이 쓰러져 마치 바다같이 평평했다. 살아남은 것이라고는 없었다. 사람들은 밭을 갈아엎고 다시 작물을 심어 겨울을 대비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띈 것은 몇 송이 메밀꽃. 남쪽 밭담에 기대어 겨우 살아난 메밀이었다. 밭담을 넘은 태풍 반경의 메밀은 모두 쓸려나갔으나, 밭담의 버성긴 구멍을 뚫고 나와 한풀 꺾인 바람 때문에 그나마 겨우 몇 포기  
의 메밀이나마 건질 수 있었다.

이듬해 신품종이 들어와 종자 걱정을 하지 않던 마을 사람과는 달리 그녀는 씨 불리기를 하며 2년이 지나서야 겨우 토종 메밀로 밭을 채울 수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영웅담에 그게 내가 지킨 거여 하는 듯 다시 할머니가 흐뭇하게 잠깐 웃었다. 그렇게 지켜낸 종자를, 그것도 2월에 찾아와 달라니 얹치었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수집이었다. 서너 시간은 머문듯했다. 할머니도 심심했던지 처음과는 달리 말 수를 조금씩 늘려갔고, 감자를 써오고 송늬를 내오면서 틈틈이 옆에서 통역해주는 할아버지도 신명이 났는지 말을 보태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리고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실로 오랜만에 할머니가 씩룩하며 웃었다. 우리는 여러 번 봤는데...

우리는 할머니의 웃음을 보고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슬그머니 손짓하더니 그래도 육지에서 예까지 왔으니 조금 가져가라는 할머니의 말은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냥 댁을 떠났다.

- 별떡 일어나서 내년에 농사지으면 다시 와서 가져갈게요.

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토종 메밀 농사도 끝이 났다.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 제주에서 토종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토종 메밀은 제주에서도 없어질지 모른다.

누가 씨종자를 주냐!

그 뒤로는 수집을 나설 때면 이만희 할머니의 이 말이 내내 귓전을 울리곤 했다.